

# 손-박 킬러 본능 ... “기다려라, 브라질”

홍민 주영

대한민국 홍명보호 평가전 그리스  
 2:0



손흥민

## 전반 박주영 골 도움, 후반 추가골 더 강해진 에이스

“골 욕심만 부리지 않고 팀에 녹아들어서 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은 지난 시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면서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로 일찌감치 지목돼왔다.  
 그럼에도 최강의 감독 시절과 홍명보호(號)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대표팀에서는 소속팀에서만 골을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에게 따라다녔으나 최근에는 태극마크를 달 때마다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6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그는 1골 1도움의 ‘알짜 활약’을 펼치면서 현재 한국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18분 왼쪽 측면에서 박주영에게 절묘한 패스를 올려 결승골의 발판을 놔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박주영의 슈팅도 빠져나갔지만, 박주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올린 손흥민의 능력이 빛난 장면이었다.  
 후반 10분에는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구자철이 흘러준 패스를 받아 강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내 ‘득점 본능’도 어김없이 뽐냈다.  
 이 골은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 체제의 대표팀에서 터뜨린 4번째 골로, 원톱 후보로 꼽히는 박주영(왓퍼드·1골), 이근호(상주), 김신욱(울산·이상 2골)을 앞지르는 팀 내 최다 골이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박주영의 부활과 더불어 가장 든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 H조 A매치 데이 결과

H조		
러시아	2-0	아르메니아
알제리	2-0	슬로베니아
벨기에	2-2	코트디부아르



손흥민이 6일 오전(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오버헤드킥을 하고 있다. /아테네=연합뉴스



박주영

## 전반 18분 선제골로 존재가치 증명 원샷 원킬 해결사

박주영(29·왓퍼드)이 돌아왔다. ‘경기력 논란’ 속에 모처럼 대표팀에 합류했음에도 그의 ‘해결사 본능’은 식지 않았다.  
 박주영은 6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18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지난해 2월6일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 교체 투입된 이후 13개월 만에 치른 대표팀 복귀전에서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한 것이다. 2011년 11월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남긴 추가골(2-0 승리) 이후 2년3개월 만에 맞본 A매치 골이다.  
 이날 골은 소속팀에서 벤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기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눈길 많은 가운데 자신이 대표팀에 필요한 이유를 증명할 득점포이기도 했다.  
 이번 대표팀 명단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그는 여러 의미에서 가장 주목받는 태극전사였다. 홍명보호 출범 이후 빈약한 공격력이 줄곧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씻어줄 후보로 박주영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소속팀 아스널(잉글랜드)에서 ‘유령 선수’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홍 감독은 선택 그를 뽑지 못했다.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는 발탁하지 않는다”는 선발 원칙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박주영에게 팀을 옮겨 경기 출전 기회를 얻도록 조언했고, 지난날 박주영이 왓퍼드로 이적하면서 대표팀 복귀의 길이 열렸다.  
 왓퍼드 이적 이후에도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해 우려를 자아냈으나 홍 감독은 박주영의 기량을 지켜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전격 발탁했다.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단 박주영은 첫 훈련부터 미니게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대표팀에 녹아들었고, 선발 원톱으로 출전시킨 홍명보 감독의 믿음에 골로 보답했다.  
 다만 5월 말 튀니지와 평가전 외에는 월드컵 전에 대표팀 경기가 없는 만큼 박주영이 소속팀으로 돌아가 얼마나 자리를 잡아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는 관건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 화끈한 공격·세밀한 압박 ... 해외파는 달랐다

해외파는 역시 달랐다.  
 해외파가 주축을 이룬 그리스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박주영(퍼드)과 손흥민(레버쿠젠)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월드컵 본선에 나설 최종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번 그리스전을 사실상 마지막 검증 무대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유럽을 비롯해 중동·일본·중국 등에서 활약하는 해외파 16명을 소집했다. 국내파는 골키퍼 정성룡(수원)과 수비수 이용(울산) 둘 뿐이었다.  
 1년1개월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박주영을 비롯해

손흥민, 구자철(마인츠), 이청용(볼턴)이 공격라인을 형성했다. 기성용(선더랜드)과 한국영(가시와 레이솔)이 중원을, 가운데 수비는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김영권(광주주 형다)이, 왼쪽 풀백은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가 책임졌다.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공격력이 돋보였다. 전술 이해도도 높았다. 안

정적이면서 정확한 볼 처리로 주도권을 쥐었다. 세밀한 간격과 압박으로 그리스의 기세를 눌렀다. 수비에서는 허점을 드러냈다. 그리스가 전반에 골대를 3차례나 때렸을 정도로 한국의 수비 조직력은 허술했다.  
 홍 감독은 이번 그리스전을 ‘육식 가리기’의 마지막 무대로 공언했다. 5월13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30명의 예비 엔트리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그리스전에 나선 23명의 선수를 토대로 월드컵 본선에 나설 정예요원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그리스전에서 활약한 해외파 상당수는 최종 엔트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팀은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한 뒤 5월28일 튀니지 평가전에 앞서 재소집된다. 이 때 소집된 선수들은 이미 예비 엔트리가 제출된 상태인 만큼 브라질 월드컵에 나설 23명의 최종 엔트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홍명보호는 튀니지 평가전을 마친 뒤 5월30일 최종 전지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전에 나선 23명의 태극전사가 사실상 브라질 본선 무대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지만 안심은 이르다. 소속팀에서 활약도 계속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복병인 ‘부상’도 피해야만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공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회원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개인가족별)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페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10층스카이뷰)  
 부담없는가격·풍부한샐러드바  
 웰빙의 야채와 최고기 샐러드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원(부가세포함)

호텔무등파크 문 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